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활동 특성과 이슈

송위진*

I. 들어가는 말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소셜벤처와 같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이 추진되면서 사회적 경제를 새로운 정책영역으로 간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현장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조직으로서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을 현실에서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의 기술활용·개선·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최근 기획되고 있는 미래부의 『사회적 격차해소 기술개발사업(가칭)』에서도 사회적경제를 주요 혁신주체로 간주하고 기술수요 발굴과 기술확산에서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조직은 암묵지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서 과학기술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업력이 쌓이고 소셜벤처가 등장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한 ICT 활용과 새로운 공정과 제품개발을 검토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등장하고 있다. 또 보급형 보청기를 개발해 취약계층 난청 문제에 대응하는 딜라이트, 악성댓글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시지온과 같은 소셜벤처가 등장하여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송위진 외, 2013).

이런 변화로 인해 사회적경제의 혁신활동과 정책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혁신활동 현황과 특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 혁신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이론적·실천적 이슈들을 정리한다. 이는 산업혁신과 차별화된 특성을 갖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작업이 될 것이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공공경제, 시장경제와 차별화되는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특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논의를 검토한다. 위계와 통제의 공공경제, 시장과 경쟁에 입각한 시장경제와 다른 협력·연대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사회적경제를 논의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활동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정리한다. 혁신의 동기, 혁신을 수행하는 방식,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입장, 사회혁신 비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인식과 입장이 다루어질 것이다. 제4장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경제의 혁신 관련 이론적·정책적 이슈와 관점을 정리한다. 귀납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이론과 정책을 논의할 때 검토해야 할 개념과 정책수단을 제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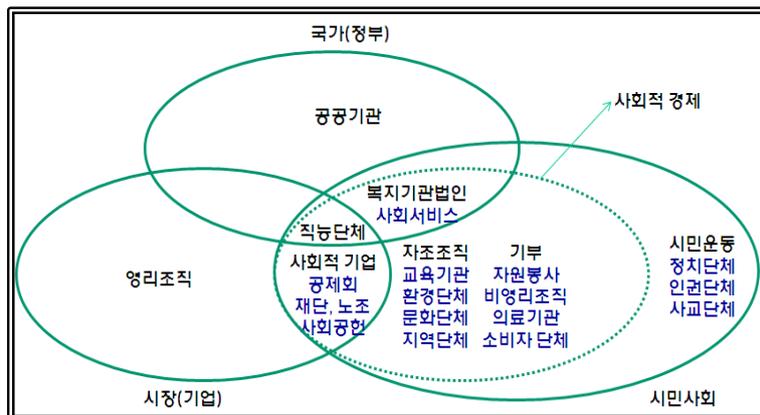
*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II.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특성

사회적경제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시기별, 분야별로 사회적경제의 정의는 변화하고 있다(신명호, 2014).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된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는 대안적 모델로서 공동체적 자치라는 제3의 모델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기획재정부, 2013). 다시 말하면 사회적경제란 자본과 권력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 세계의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방식이다(장원봉, 2005).¹⁾

그렇다면 시장과 국가와 다른 사회적경제의 특성은 무엇인가? 유럽연합의 사회적경제 대표기구인 유럽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Europe)은 사회적 경제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신명호, 2014).

-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보다 우선한다.
- 구성원 자격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 구성원 및 이용자의 이익, 기타 보편적 이익 등을 고루 안배해야 한다.
- 연대와 책임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 잉여의 대부분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구성원의 이익과 보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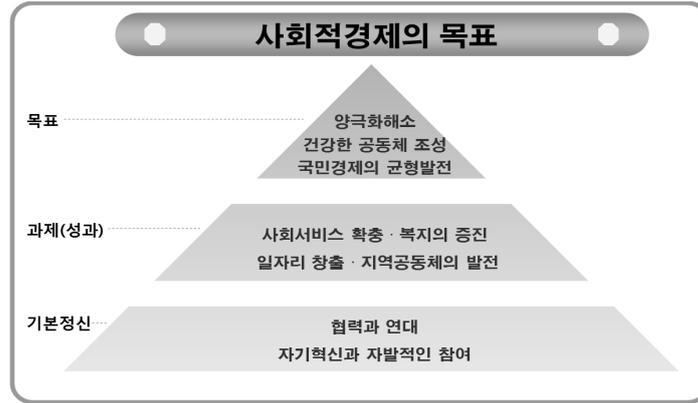


(그림 1) 사회적경제의 위상

자료: 기획재정부(2013), 사회적경제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좀 더 실무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안, 2014.4).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김성기 외(2013), 정관영(2013), 주성수(2010)을 참조할 것. 한국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는 서구와는 맥락이 다른 측면이 있다. 서구는 복지국가 쇠퇴와 함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로 사회적경제가 부상했다. 그러나 한국은 복지국가를 아직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는 복지국가 형성과 동시에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신명호, 2014). 최나래·김의영(2014)은 자본주의 다양성 관점에서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인 영국과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인 스웨덴을 비교하면서 각국의 경로의존성에 따라 사회적경제가 다양함을 논의하고 있다.



(그림 2) 사회적 경제의 목표

자료: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2014),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다. 이들 조직은 사회 가치 실현을 우선으로 하는 호혜적 경제 조직이다. 이들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을 창출해 사회 통합과 복지에 기여한다.

<표 1>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유형과 정책관련 부처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목적	협동조합 활동 촉진 및 사회통합, 국민경제 균형 발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자리 창출 및 탈빈곤 유도	농어촌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지역활력 증진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적근거 없음 (예산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3)
대상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지역단위 소규모 공동체(마을회, 지역NPO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1/3 이상인 기업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마을단위 공동사업체
혜택	직접 지원은 없음 *개별 부처 혜택 (중기청 소상공인협업화사업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판로개척, 해외연수, 경영 컨설팅 지원, 인건비 지원, 세제 혜택 등	사업비 지원, 전문교육, 경영 컨설팅 지원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초기창업자금·인건비 지원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컨설팅 홍보 지원
추진체계 및 역할	(기재부)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정책 총괄,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인가·감독, 기재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감독 등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 중심 (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공구매, 판로개척, 인력양성, 인증·모니터링, 네트워크 지원 (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안행부) 마을기업 사업비 및 컨설팅 지원시책 기획, 마을기업 지정 및 지정사항 통보,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에 대한 회계 점검 등 총괄 (시·도) 지원사업 공모·심사,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중심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7종 급여), 희망리본사업, 희망키움통장 (지자체) 지역자원 연계,	(농림부) 농어촌공동체 회사 역량 강화 및 R&D 등 지원사업 연계 강화 (지자체) 농어촌 공동체 회사 선정, 사업비 지원(최대 2년), 브랜드 개발로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추진체계 및 역할	(각 부처) 부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인가 및 감독 (시·도) 협동조합에 대한 각종 신고 및 과태료 부과 등	심사·선정, 지역고용심의회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 모델 발굴	약정체결 및 사업비 교부	자산형성 지원, 탈빈곤 자활공동체 (고용안정센터) 직업훈련, 취업알선, 공공근로, 창업지원, 자원봉사	홈페이지 개설 *(유형)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사회복지서비스형

자료: 기획재정부(2013)

III.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활동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사회적경제의 혁신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본격적으로 정책대상으로 등장한 것이 최근의 일이고 또 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²⁾ 여기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³⁾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 혁신활동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과 토론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청취하고 의견을 조율해가는 장점이 있다(박희제·안성우, 2005, 안성조·이성근, 2012).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주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분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활동 특성을 정리한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혁신활동을 하는 이유와 그것이 기존의 영리기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질문하고 조직을 설립하여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을 물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인식과 활용방식,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장기전망에 대해 청취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14년 8월 21일에 수행했다. 포커스 그룹 참석자는 6명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대표 이사 3명,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의 사무국장 3명으로 구성했다. 참석자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사회적 경제의 협회조직인 ‘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로부터 추천받았다.

<표 2> 포커스 그룹 참석자 명단

	조직	직위
사회적경제 조직	크린원(청소, 자활기업)	대표
	온케어(돌봄서비스, 사회서비스 선도기업)	대표
	심원테크(OA기기 및 재활용, 사회적기업)	대표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경기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경기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장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기업팀장

2) 사례연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혁신활동을 다루는 것으로서는 한겨레경제연구소(2013)을 참조할 것.

3)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적용은 박희제·안성우(2005), 안성조·이성근(2012)을 참조할 것.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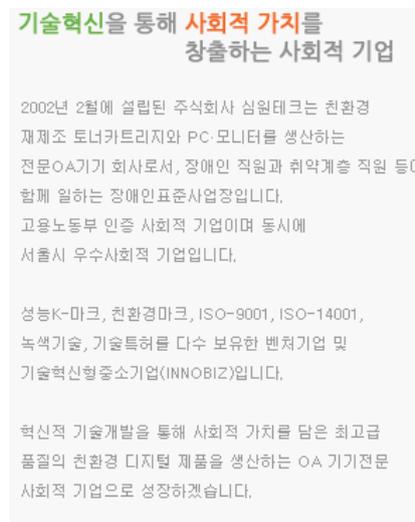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조직과 강조가 약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존재하고 있다. 보조금 때문에 사회적 경제에 진입한 조직, 사회적 지향성이 약한 조직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은 명목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지만 일반 영리조직과 큰 차이가 없다.

혁신활동의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다. 초기 단계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수준의 활동을 수행한다.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에게는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이다. 물론 제품개발과 공정혁신을 수행하는 지식집약형 사회적경제 조직도 존재한다. 소셜벤처, 업력이 쌓인 자활기업, 기술집약형 사회적기업은 일반 중소기업과 유사한 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에는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 및 기반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조직의 특성에 따라 혁신활동의 양상이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조직일수록 혁신지향성이 강하다. 이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적으로 생존해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이 혁신활동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그것을 지원해주는 하부구조는 상당히 취약하다.

2. 비즈니스 구성 방식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은 사회적 가치를 담은 비즈니스 모델개발에서 시작한다. 사회적 가치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조직운영의 원리로 삼는 데에는 대표이사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 점이 부족하면 일반 영리기업과의 차이점이 사라진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했던 심원테크는 “기술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소개문을 제시하면서 기업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림 3)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기업

사회적경제 조직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비즈니스를 전개한다. 이 때 현장에서 축적한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이 비즈니스와 혁신활동의 기반이 된다.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연구개발 투자와 공식적인 연구개발조직이 없다고 해서 혁신활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숨겨진 방식으로 암묵적 지식을 토대로 혁신(hidden innovation)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4)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교육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컨설팅을 통해 기업을 설립하게 된다. 시군구의 아카데미, 대학기관의 창업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등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 사회적경제 비즈니스에서 경험이 있는 선배 인사가 컨설턴트로서 조언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3. 혁신활동 특성

1)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지향성

사회적경제 조직은 혁신지향성이 강하다.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고용 때문에 나타나는 생산성 저하를 감수하면서 사회적 가치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리기업과 차별화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수익성이 좋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서비스인 자원순환, 간병 및 돌봄, 환경 개선 분야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시장을 개척하고 고도화하기 때문에 혁신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리기업이 소홀히 할 수 있는 노동환경 보장, 친환경 비즈니스, 공정거래 방식을 취하며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혁신적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을 혁신하여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비공식영역에 속했던 청소활동, 자원수집·재활용 활동을 전문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니치(strategic niche)’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송위진, 2013).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다양한 혁신활동이 실행되고 있지만 성공모델은 아직 불분명하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하는, 기존 산업혁신과 차별화되는 모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2) 고부가가치 지향 혁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경제적 가치를 위한 요소로 만들어 고부가 영역으로 진출하는 모델도 있다. 일정 수준의 자원과 능력을 갖춘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주로 활동하는 공공시장은 단가가 낮은 경우가 많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 관리비용도 상당히 발생한다. 또 사회적경제 조직들 사이의 경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인터뷰에 참여한 ‘크린원’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 사무실 청소에서 전문실험실 청소, 그리고 동물실험실 청소로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진출했다. 전문실험실이나 동물실험실에서는 화학물질이나 청소용제를 사용할 수 없다. ‘크린원’은 물에 전기 스파크를 가하여 세척기능을 갖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청소 방법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다른 조직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부가가치 분야에 진입할 수 있었다.

고부가가치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술학습이 필요하다. 청소분야의 경우 장비를 가지고 ‘실행을 통한 학습’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한다. 노동집약적인 단순 청소로는 고부가 서비스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장비와 기술이 결합된 혁신을 수행한 것이다. 또한 장비의 현장 적용을 통해 새로운 장비활용 노하우 구축이 필요하다.

4) 혁신활동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NESTA(2007)을 참조할 것

5) 장애인·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영리기업의 생산관리 방식 도입이 어렵다. 장애인이 많은 생산라인에서는 표준화·일관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적합한 생산라인과 공정이 필요하다.

다. 외국에서 도입된 에스컬레이터 청소기의 경우 실행을 통한 학습을 통해 주방바닥 청소에 적합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주방청소기로 사용하는 혁신이 있었다.

일정 수준의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대표이사가 중심이 되어 혁신활동을 주도한다. 중간 관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표가 인사조직, 재무, 혁신활동을 모두를 담당해서 혁신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심원테크와 같이 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고졸·대졸인력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사용 경험을 축적해서 실천기반 혁신(practice-based innovation)을 수행하고 있다(Melkas and Harmaakorpi, 2012).

3) 기술활용 촉진

인적, 물적 기반이 취약한 사회적 경제적 조직(예: 자활기업)의 혁신활동은 기술개발보다는 기술활용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자활기업의 경우 기업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품질향상, 생산성 증가,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혁신에 대한 욕구가 높다. 청소·집수리 업종의 경우, 장비·제품 등의 분야에 기술이 필요하며, 재활용업종의 경우 선별장 공정 및 재활용 가능 재료 추출을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또 자활기업은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구성원들이 많은 질병을 호소하고 있어 작업장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또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디자인 및 기술개발지원이 요청된다. 그러나 자활기업 구성원의 혁신에 대한 의지는 크지 않다. 혁신에 수반되는 새로운 교육, 훈련에의 적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인 광역자활센터의 경우, 공동사업 추진, 공동브랜드 사용 등, 규모화를 위해 광역자활기업(자활기업들을 묶어 하나의 기업으로)을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 집수리 자활기업을 광역기업으로 설립하여 공동물류,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부가치 사업 개발 등을 시도하고 있다.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자활센터를 통해 기업들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성과가 나왔을 때 확산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4) 지원조직 및 전문연구조직과의 협력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자원과 혁신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원하지만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구인력 보유여부, 기업 매출액 및 규모 등이 전문연구기관과 협력하거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이 되는데 이런 요건을 만족시키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많지 않다. 또 중소기업 지원기관, 전문연구기관들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존 영리기업과의 협력 방식에 익숙한 상태에 있다. 이들은 인건비와 일정 규모이상의 연구비가 확보될 수 있는 공동연구사업을 선호한다. 따라서 논문·특허 획득이 어렵고 사업규모도 크지 않은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공동연구는 피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중소기업 혁신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조직은 과학기술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하고 컨설팅 받는 방식을 선호(과학기술 프로보노)한다. 이 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여러 경영지도사, 컨설팅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기존 영리기업 지원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컨설팅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회적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과 경영지원이 필요하다.

4.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인식과 활용 정도

사회적경제 조직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자신들과 매우 멀리 떨어진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대기업과 규모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서 그들만의 리그로 움직이고 있다고 파악한다.

혁신지원제도 활용경험은 거의 없다.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요구되는 규모, 인력, 재무구조와 같은 조건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는데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사회적 기업에게는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개발비가 지원되지만 이를 활용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단기간에 빠른 성과 창출을 요구하는데 이것에 쉽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품·공정혁신 혁신활동보다는 홈페이지 개편 등에 활용되고 있다.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영리기업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도 한계가 있다. 영리기업이 보유한 능력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비즈니스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노하우와 암묵지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영리기업이 수행하는 사회적공헌 활동은 홍보의 성격이 강하다. 시스템적 방식으로 지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업홍보차원의 지원을 넘어 영리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제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활동 촉진 및 시장창출에서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정책적 개입은 혁신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자원순환과 환경보호, 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제품처리나 서비스 공급기준이 필요한데 이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 프린터 폐카트리지로 인한 환경 파괴 등 여러 사회문제가 있는데 정책의제로 부각되지 못해 기준이나 규제가 없고 방치된 분야가 있다. 이로 인해 무분별하게 제품이 폐기되거나 저질의 단순 사회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준이나 규제, 공공구매가 이루어지면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의 혁신활동도 촉진하여 사회서비스 영역의 고도화 및 지식집약화를 이룰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관련 업무를 표준화·효율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소, 주거환경 개선, 자원재활용, 간병 및 돌봄서비스 등 노동집약적인 작업을 표준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표준작업매뉴얼)과 기기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작업을 좀 더 효과적·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5. 사회문제 해결의 비전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 경제의 존재 이유임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사회적 기업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가 약화될 수도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평가할 때 재무적 성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망각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스스로 정리되는 자정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며 지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점검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협회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평가지표나 시스템을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지만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한 전망은 아직 추상적이다. 시스템을 혁신하고자하는 관점은 존재하나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즉 친환경이라는 가치지향은 뚜렷하나 시스템 전환의 비전(예: 자원순환사회)과 의의, 전환방법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초창기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조직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한다. 이러한 대중적 활동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비전과 현재 수행하는 혁신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활동을 개별적이고 단순한 혁신활동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예: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실험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IV. 이론적 · 정책적 이슈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하기 때문에 혁신적이어야 하는데, 가용한 자원과 하부구조는 부족한 상황에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과 전략,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다음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을 강화하고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론적·정책적 이슈와 그것을 접근하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는 향후 심화연구를 위한 연구가설로서의 의미가 있다.

1. 과학기술과 사회적경제 실천의 결합

1) 실천기반 혁신과 과학기반 혁신의 통합

혁신활동은 크게 ‘과학기반 혁신’과 ‘실천기반 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Melkas and Harmaakorpi, 2012). 과학기반 혁신(science-based innovation)은 과학기술지식을 바탕으로 혁신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구소에서 수행되는 공식적인 R&D,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활동에 기반하고 있다. 반면에 실천기반 혁신(practice-based innovation)은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암묵지에 기반한 혁신활동이다. Jensen et al(2007)은 이러한 혁신유형을 STI 방식(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mode)과 DUI 방식(doing, using, and interacting mode)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 동안 실천기반 혁신은 혁신정책에서 주요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근래의 혁신정책은 연구개발 등과 같은 공식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개발투자 확대와 연구개발인력 확보를 중요한 이슈로 논의해왔다. 그러나 연구개발투자가 적고 전문 과학기술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혁신활동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기술을 사용하고 다른 주체와의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산업화 초반에 이루어진 한국의 혁신활동은 실천기반 혁신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외국에서 도입된 시스템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다양한 암묵지를 축적하고 점진적 혁신을 수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지식에 공식적인 연구개발활동이 결합되면서 기술추격에 성공할 수 있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수행하는 혁신활동은 현장의 암묵지에 기반한 실천기반 혁신인 경우가 많다. 사회서비스와 같이 R&D 집중도가 낮은 중 저기술산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또 실천기반 혁신에서는 현장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 자본 확보가 중요한데 이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닌 조직 특성과 부합된다.

한편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천기반 혁신활동은 연구개발조직을 운영하거나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 같은 전문기관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전문기관의 연구개발능력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인력의 노력을 바탕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자력갱생형 적정기술 개발을 지향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공식적 과학기술기반에 접근성이 떨어져 자력갱생형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 이미 한국사회가

축적한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남겨두는 것이다.

혁신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천기반 혁신 방식과 과학기반 혁신 방식이 결합된 유형이 필요하다. 현장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의 결합되면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덴마크나 노르웨이의 중 저기술 분야 혁신활동을 분석한 연구에서 실천기반 혁신과 과학기반 혁신이 결합되었을 때 높은 성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Jensen et al, 2007; Fitjar and Rodriguez-Pose, 2013; Isaksen and Nilsson, 2013).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노나카가 주장한 바와 같이 지식의 나선형적인 공진화를 위해서는 암묵지와 형식지의 결합이 필요하다(Nonaka, 1994).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천기반 혁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반 혁신과의 결합이 필요하다. 현장에서의 경험과 공식적인 연구조직에서 축적한 지식과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공정을 개발해야 한다. 이 결합은 공식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연구조직에도 도움을 준다. 과학기술자들이 설정한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실제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의 노력과 결합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 지향적, 문제해결 지향적 혁신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현장의 문제해결활동과 연구개발조직의 공식적 연구개발활동이 공진화하면서 지식기반을 확장할 수 있다.

2) 사용자 참여6형 모델인 리빙랩 활용

리빙랩(Living Lab)은 사용자들이 생활하는 실제 현장에서 니즈를 반영하여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랩은 비연구자들로부터 격리된 폐쇄된 공간으로서 연구자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여기서는 통제된 실험이 행해진다. 리빙랩은 도시지역, 농촌지역, 학교, 양로원, 아파트와 같은 실제 생활공간을 실험실로 정하고 사용자와 과학기술전문가가 공동으로 의거결정을 하는 틀을 지닌다.

리빙랩은 시민사회와 과학기술관련 전문 혁신주체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Public-Private-People-Partnership(PPPP) 방식의 혁신모델에 입각하고 있다. ‘사용자 주도형 개방형 혁신 모델’로서 이를 통해 시민사회가 지닌 현장의 지식과 혁신주체들이 지닌 공식적 과학기술지식이 결합되는 특성을 보여준다(송위진, 2012). 이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연구개발활동과 사용자의 문제해결 활동이 결합된다.

현재 리빙랩 사업은 유럽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6년 리빙랩 사업이 시작된 이후 ENoLL(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을 결성하여 현재 약 350여개의 랩이 활동하고 있다. 도시문제 해결, 에너지·환경문제 대응, 행정혁신, 지역개발 등을 위해 리빙랩이 운영되고 있다.

리빙랩은 유럽의 특성을 반영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시민사회가 발전되어 있어 시민으로서 공적활동에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안정되어 있어 지역사회에서 전개되는 기술기반 문제해결 활동에의 참여가 자연스럽다. 과학기술주체와 시민사회가 팀이 되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실험을 전개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구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시민사회의 공적활동 참여가 활발하지 않고 지역 공동체도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 많이 해체되어 있는 상태다. 신뢰와 참여를 위한 사회적 자본이 매우 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협력과 연대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우리나라에서 리빙랩을 운영할 때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리빙랩을 통해 과학기술 지식과 현장의 지식이 결합되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사회적 경제를 더욱 확대·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원순환 리빙랩’을 구축해서 폐기물 배출, 수거, 재활용을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마을만들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폐기물 수거시스템 혁신을 수행할 수 있다. 또 태양광을 이용한

다양한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리빙랩 방식으로 운영하여 햇빛발전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이고 협동조합도 확장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혁신모델 구축

1) 리버스 이노베이션 전략 활용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활동은 저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제한된 취약계층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적은 비용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혁신제품의 시장 규모가 작고 확장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때에는 혁신제품을 영리시장이나 해외시장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기술을 활용한 저비용 기술,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한 혁신을 주류 경쟁시장으로 진출시키는 리버스 이노베이션(reverse innovation)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빈다라잔과 트림블, 2013).

리버스 이노베이션은 개발도상국이나 사회 기층을 위한 혁신활동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일반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혁신전략이다. 선진국이나 주류 시장에서 개발된 기술을 후발국이나 저소득층 시장에 적용하는 전통적인 혁신전략과 반대로 개발도상국 저소득층 시장에서 개발된 기술을 선진국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GE 차이나가 중국의 보건소에 보급한 염가형·보급형 초음파진단기기를 선진국의 응급의료영역시장에 진출시킨 것이 그 사례이다(Immelt et al, 2009).

크리스텐센은 이런 유형의 혁신을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Christensen et al, 2006). 성능을 약간 떨어지지만 적은 비용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과거에는 그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소비자를 형성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활동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의 혁신전략을 개발할 때 이런 점을 반영하여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후발국과 달리 일정 정도의 사회하부구조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후발국에서 논의되는 적정기술 중심의 논의와는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구축된 사회하부구조와 축적된 과학기술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소비자를 발굴하는 리버스 이노베이션 또는 사회적 혁신이 요청된다.

2) 혁신연계조직 활성화

영리조직과 비교할 때 사회적경제 조직이 갖는 강점은 연대와 협력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과 달리 지역기반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 사이에는 혁신결과의 확산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또 협회와 단체와 같은 사회적 경제의 당사자 중간조직도 회원 조직의 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활동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이런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집합적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의 결과를 널리 공유·활용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혁신연계조직(innovation broker)’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혁신연계조직은 혁신주체의 니즈 발굴과 비전을 수립하고, 혁신주체들간의 혁신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Klerkx and Gildemacher, 2013). 현재까지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은 많지 않지만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회·단체가 이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 조직간의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부족한 능력과 자원을 외부 혁신주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회원조직들간의 지식을 공유하고 외부 조직과의 공동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일정 정도 능력이 축적되면 혁신연계조직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구개발활동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송위진·최지선·김갑수 외, 2005).

3) 사회적경제 전용 마이크로 연구개발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를 위한 ‘마이크로 연구개발사업’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연구개발사업 구조는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연구개발사업의 임계규모가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의 규모가 작거나 기술개발 및 활용조직의 규모가 영세한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렵다. 또 기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제안서, 참여 주체의 자격, 논문, 특허, 기술료 등에 입각한 연구개발사업 평가방식도 사회적경제 조직 혁신활동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탈피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전용 마이크로 연구개발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조직과 일정 자격을 갖춘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공동연구팀에 소액의 그랜트(Grant)를 제공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마치 사회적경제 금융 분야에서 전개되는 ‘마이크로 크레딧’⁶⁾과 유사한 성격의 마이크로 연구개발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연구개발조직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동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조직화된 참여가 필요하다. 개별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개발활동보다는 산업영역에서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회 수준에서 과제를 도출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개발을 통해 관련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후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업은 소규모 과제로 추진하지만 성과 창출 및 확산은 상당히 큰 규모로 전개될 수 있다.

3. 시스템 전환과 사회적경제 조직 혁신

1) 전환실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관점(sustainability transition)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에너지·환경문제,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난제는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된 복잡한 문제로서 개별 제도와 기술의 개선이 아니라 사회·기술시스템 전체의 혁신을 요구한다(송위진, 2013; Grin et al, 2010; Loorbach, 2007).

시스템 전환은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술, 제도, 하부구조, 문화 등 ‘시스템 전체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과 방법론이다. 20-30년 걸리는 장기적인 시스템 전환을 현재의 중단기형 혁신활동과 연결하여 접근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기존 시스템을 혁신하여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험(socio-technical innovation 혹은 transition experiment: 전환실험)의 수행이다. 시스템 전환에 대한 장기 비전을 세우고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여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의 니치를 확대시켜 전환의 정당성과 가능성, 그것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Van den Bosch, 2010; 사회혁신팀, 2014).

6) 마이크로 크레딧(microcredit)은 무담보 소액대출로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출사업이다.

<표 3> 전통적인 프로젝트와 전환실험의 비교

	전통적인 혁신 프로젝트	전환실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에 대한 해결책 개발 • 새로운 시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저탄소경제와 같은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에 기여
혁신의 성격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혁신·적응·개선 • 혁신은 기존의 관행, 조직, 문화, 금융 제도, 법률제도 등(‘사회·기술체제’)의 큰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관행, 조직, 문화, 금융 제도, 법률제도 등 (사회·기술체제)의 시스템 변화를 지향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프로젝트 수행을 넘어서는 중장기적 시각

자료: 사회혁신팀 편역(2014: 26)에서 일부 수정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상적인 사회문제 해결활동으로 파악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활동은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전환실험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문제해결 활동을 수행하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니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 혁신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시스템 전환의 거시적 측면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일상적 혁신활동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전환 비전 형성과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소속되어 있는 당사자 조직(협회) 수준에서 비전이나 미션을 토대로 시스템 혁신에 대한 전망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활동을 확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도 고민해야 한다. 개별 조직의 혁신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니치로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경제 조직 혁신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전환지향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연구조직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회문제 해결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2) 선도시장 전략

선도시장전략(Lead Market Initiative)⁷⁾은 공공적 성격을 지닌 환경·안전·에너지·복지 분야의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전략이다. 선도시장 전략은 새로운 기술이 실험되고 검증될 수 있는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공공구매, 규제, 표준화 등 수요관련 정책수단과 기술개발과 같은 공급기반 정책수단을 패키지의 형태로 활용하는 통합형 정책이다. 여기서 ‘선도시장’은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처음으로 채택하여 구현하고 다른 지역과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 국가나 지역 시장을 지칭한다 (European Commission, 2010; Edler et al, 2009).

선도시장전략은 사회적 경제의 혁신결과물을 위한 시장 형성과 함께 관련 제도를 동시에 만들어가는 전략

7) 선도시장전략은 현재 유럽에서 EU 선도시장전략(EU Lead Market Initiative)으로 추진되고 있다. 선도시장 전략은 1) 수요지향적인 특성 2) 기존의 혁신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공공구매, 규제, 표준과 같은 새로운 정책수단들 활용 3) 규모는 크지 않지만 치밀하고 영리한 접근 4) 정책들의 통합 5) 수평적인 정책조정활동 등을 필요로 한다(Edler, 2009).

이 될 수 있다. 표준화, 기술적 호환성, 사회적 수용성, 공공구매 시 구매여부, 관련 기술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기술의 수용성을 검증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혁신을 위한 시장이 형성되어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의 니치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시스템 전환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Walz and Kohler, 2014).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활동 특성과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복지와 고용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파악되어 이를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또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에 참여하는 새로운 주체로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의 혁신활동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이슈와 관점을 다루었다. 과학기술과 사회적경제의 연계를 통합하기 위한 이론과 방안,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혁신모델 발굴 및 활용, 시스템 전환과 사회적경제의 혁신활동 연계가 향후 사회적경제의 혁신이론과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을 주장했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탐색적 주장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나 조사연구를 통해 더욱 깊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빈다라잔과 트림블(2013), 『리버스 이노베이션』, 도서출판 정혜.
- 기획재정부(2013), “사회적경제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기획재정부.
- 김성기 외(2014),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 아르케.
- 사회혁신팀 편역(2014),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 이론과 실천』(Sterrenberg L., Andringa, J., Loorbach, D., Raven, R., and Wiczorek, A.(2013), Low-carbon transition through system innovation Theoretical notions and application, Pioneers into Practice Mentoring Programme 2013),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2014),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새누리당.
- 박희제·안성우(2005), “유전자변형식품을 통해 본 한국인의 과학기술 이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분석”, 『경제와 사회』 2005년 여름호.
- 안성조·이성근(2012),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테크노파크의 기능분석”,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3호.
- 송위진(2012), “Living Lab: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 STEPI Issue and Policy, 제59호.
- 송위진(2013),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 『과학기술정책』 제23권 제4호.
- 송위진·성지은·김왕동(2013), “기술집약형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STEPI Issue and Policy, 제65호.
- 송위진·최지산·김갑수 외(2005), 『산업계 연구개발 중간조직의 모형 개발』, 산업자원부.
- 신명호(2014), “사회적경제의 이해”, 김성기 외(2014),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 아르케.
- 장원봉(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 집.

- 정관영(2013), 『이제는 사회적경제다』, 공동체.
- 주성수(2010), 『사회적 경제: 이론, 제도, 정책』. 한양대학교 출판부.
- 한겨레경제연구소(2013),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아르케.
- Christensen, M., Baumann, H., Ruggles, R., and Sadtler, T.(2006), "Disruptive Innovation for Social Change", *Harvard Business Review*, Vol. 84, No.12, 94-101.
- Edler et al. 2009. Monitoring and Evaluation Methodology for the EU Lead Market Initiative: A Concept Development, Final Report,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Manchester Business School.
- European Commission, DG Enterprise(2010), "How to Strengthen the Demand for Innovation Europe?", *Lead Market Initiative for Europe*.
- Fitjar, R., Rodriguez-Pose, A.(2013), "Firm Collaboration and Mode of Innovation in Norway", *Research Policy*, 42, 128-138.
- Grin, J., Rotmans, J. and Schot, J.(2010), *Trans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Long Term Transformative Change*, Routledge.
- Immelt, J., Govindarajan, V. and Trimble, C. 2009. "How GE is Disrupting Itself", *Harvard Business Review*, October, 2009.
- Isaksen, A. and Nilsson, M.(2013), "Combined Innovation Policy: Linking Scientific and Practical Knowledge in Innovation Systems,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 21, Issue 12, 1919-1936
- Jensen, M., Johnson, E. and Lundvall, B.(2007), "Forms of Knowledge and Modes of Innovation", *Research Policy*, Vol. 36, 680-693.
- Klerkx, L. and Gildemacher, P. (2012) The Role of Innovation Brokers in 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s. In *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s: An investment sourcebook*. The World Bank. Washington, WB: 221-230.
- Loorbach, D.(2007), *Transition Management: New Mode of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therlands.
- Melkas, H. and Harmaakorpi eds(2012), *Practice-based Innovation: Insights, Applications and Policy Implication*, Springer.
- NESTA(2007), *Hidden Innovation: How Innovation Happens in Six 'Low Innovation' Sectors*, NESTA.
- Nonaka, I.(1994), "A Dynamic Theory of Organizational Knowledge Creation," *Organization Science*, Vol. 5, No. 1.
- Van den Bosch, S.(2010), *Transition Experiment: Exploring Societal Changes toward Sustainability*, Erasmus University Ph. D thesis.
- Walz, R. and Kohler, J.(2014), "Using Lead Market Factors to Assess the Potential for a Sustainability Transition, *Environmental Innovation and Societal Transitions* 10, 20-41.